

2024년 설 가정예배

*영상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순서

예배인도: 허요환 목사

묵도

인도자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8장)

다같이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인도자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교

행복이란

허요환 목사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212장)

다같이

축도

허요환 목사



[설예배 설교문]

행복이란 시편 128편 1-6절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원근각지에 흠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처럼 함께 하는 가족과의 만남이 행복한 자리가 되길 빕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 역시 다릅니다. 그럼 시편 128편의 저자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그게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삶이 누리는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절과 3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2절은 자신이 수고하여 일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이런 행복을 가족 전체로 확장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비유하는데, 포도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유실수입니다. 그러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 제 몫을 다하는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를 넉넉히 누리는 자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열심히 일하고 제 몫의 대가를 누립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모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은 최근에 유행하는 파이어족과는 사뭇 다릅니다. 파이어족(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은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젊었을 때에 임금을 극단적으로 절약하여 노후자금을 빨리 확보해,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명한 재무 설계사 수즈 오만은 파이어족이 되려면 최소 500만 달러를 모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1000만 달러를 모아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원화로 최소 66억이 필요하고 충분히 즐기 위해서는 132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큰돈을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파이어족 이되려는 분들의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자금을 모으려고 일을 할 때 과연 행복할까요?

시편 128편의 시인은 참된 행복을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대가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합니다. 주어진 몫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행복합니다. 자,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이다.” 이 구절을 곱씹어보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4절의 “복을 얻는다.”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 순종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무릎을 꿇는 자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는 일의 행복을 누리고, 일의 대가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은 일터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일의 대가를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데 있습니다. 그런 행복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나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주심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공동체로 확장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시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이끄심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행복을 꿈꾸면, 가정과 도시 그리고 역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명가문을 세우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